

### 제34회 光日 보훈대상 영광의 얼굴

#### 오늘 광주 시민회관에서 시상식

‘제34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박광태 광주시장·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처장·김진영 광주일보 사장과 시민·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해로 34번째를 맞고 있다. 영광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최현원기자 cki@kwangju.co.kr

#### 상이군경회원의 복지 증진·화합 도모 앞장

##### 월남참전 부상 김명근 씨

김명근(62)씨는 지난 1966년 6월 해병대에 입대 후 67년 2월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 피해로 합병증을 얻어 7급 공상군경이 됐다.

김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린 3남매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교육공무원·화가·약사로 훌륭하게 키웠다. 지난 1971년 이후 36년째 광주 남구청 지역 근로자 취업 안내소장으로 재직하며 일용직 근로자 48명 등의 취업을 앞섰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구지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10월부터는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화합을 목적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고령회원과 불우회원 45명을 선발해 호국순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남편·가족 헌신 뒷바라지...20년 넘게 봉사활동

##### 공상군경부인 남유희 씨

남유희(48)씨는 1974년 광복절 대간첩 침투사건 당시 척추 골절상을 입고 제대한 공상군경 송수철씨의 아내다. 1급 중상자로 의복계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 자신을 희생해

서라도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가정교육에 힘쓰는 등 가족들을 위해 온 몸을 바쳤다. 또 20년이 넘



게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다. 남씨는 사회 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검정고시를 거쳐 2006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 홀로 4남매 돌보면서도 불우시설 찾아 봉사

##### 순직군경 미망인 서유림 씨

서유림(71)씨는 지난 1958년 군인이었던 남편 김이석(순직군경)과 결혼했다.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남편 김씨는 1976년 송정리 공군부대에서 준위로 근무하던 중

볼의 사고를 당해 국군통합병원에서 1년 정도 투병생활을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순직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서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4남매를 돌보기 위해 일터로 나섰다. 주방의 허드렛일 부터 잡화, 화장품 행상을 하며 여러



운 세월을 보냈지만 남편의 의로운 죽음을 항상 자랑스러wie 생각한다. 서씨는 12년 간 전몰군경미망인회 공산구 지회장 맡아 활동하며 불우시설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등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 광주천 정화활동 등 ‘봉사하는 유족회’ 만들어

##### 전몰군경 유족 나창주 씨

나창주(69)씨는 6·25전쟁 당시 애국대동청년단 단장이었던 아버지(고 나갑)가 1950년 8월26일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서 벌어진 공비도발 작전에 참전해 사망한 뒤 어

린 동생들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정 역할을 했다. 지난 2003년 5월부터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광주북구지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보훈병원 장기 입원환자들을 방문·위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광



주시지부 관리과장을 맡아 매달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나씨는 무등산자연보호 캠페인과 광주천 일대 정화활동 등 ‘봉사하는 유족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고 있다.

#### 신체적 역경 딛고 집안·마을 곳곳 일 도맡아

##### 무공수훈자 김춘식 씨

지난 1951년 10월27일 육군 보병 6사단에 입대해 김춘식(79)씨는 1953년 1월 10일 강원도 금화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적의 포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전

상군경 3급 유공자다. 김씨는 이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인정받아 화랑 무공훈장(1954년 10월)을 받았지만, 제대 후 전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 김씨는 그러나 신체적 역경을 딛고 일어나 농사일과 막노동물 하면서 노부



모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또 마을의 곳곳 일도 도맡아 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광주시 북구지회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2000년부터 거리질서 캠페인·환경정화 활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유형성출혈열 새 매개동물 발견

#### DMZ 서식 ‘우수리땃쥐’서 한타바이러스 분리

#### 기존 백신 효과 없을 수도

등줄쥐 등 설치류에 의해서만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진 유형성출혈열 병원체 한타바이러스가 곤충을 잡아먹는 포유류인 식충목(食蟲目) 동물에 의해서도 옮겨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우수리땃쥐

고려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송진원 교수는 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질병통제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무장지대(DMZ) 근처에서 잡힌 우수리땃쥐(Ussuri shrew·사지)에서 새로운 종류의 한타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고 밝혔다.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이런 유전적 차이는 임진바이러스가 유형성 출혈열을 일으킬 경우 현재 쓰이는 백신과 치료제 등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임진바이러스’(Imjin virus : MJNV)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설치류에서 분리된 기존의 한타바이러스들과는 유사성이 40%에 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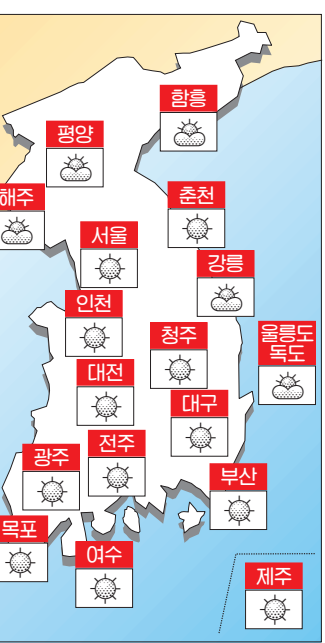
우수리땃쥐는 검은색 또는 갈색을 띠는 회색 털을 가진 식충목의 포유동물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북동부, 시베리아 남동부 등에 서식한다. /연남뉴스

### 맑은 하늘 6월 6일

아침에 안개가 개졌으나 대체로 맑은 날이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Gangwon, Seoul, and Jeju.

6월 6일 (음 4월 21일) ◇주간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5:42 썰물 < 11:01 목포 밀물 < 17:44 썰물 < 22:58 여수 밀물 < 00:17 썰물 < 06:32 12:21 썰물 < 18:19

▲해돋이 05:18 ▲해질 19:44 ▲달돋이 24:00 ▲달질 09:4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7 days from June 6th to 12th.

### 광주거주새터민

#### 10명중 2명 취업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탈북자) 10명 중 2명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지역 내 새터민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4.8%인 30명만이 직장이 있으며, 나머지 75.2%인 91명은 무직이거나 학생 등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은 7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비정규직(16명)이거나 자영업(2명) 등이었다.

이들은 직장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저임금(55.3%)을 꼽았고, 상사·동료와의 관계(29.8%)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취업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자격증·기술 부족(58.8%)이었으며, 사회의 차별과 편견(27.5%)과 취업정보 부족(7.5%)도 한 몫했다.

지역사회 적응하기 어려운 점으로는 문화·관광시설 이용(34.8%), 이과와의 교제(11.2%) 등이 거론됐다.

광주 거주 새터민은 남자 69명, 여자 127명 등 모두 196명이다. /김정주기자 jjnnews@



#### 미꾸라지야, 모기 많이 잡아 먹으렴!

광주시 서구청은 5일 오전 매월동 정령 저수지에서 삼성유아스쿨 어린이 30여 명과 방역요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기 유충 퇴치용 미꾸라지 1만5천여 마리를 방류했다.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하루 1천여 마리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청은 월 2회 이상 유충 개체수 증감 현황을 조사해 효과가 없을 경우 방류 대상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서구청은 5일 오전 매월동 정령 저수지에서 삼성유아스쿨 어린이 30여 명과 방역요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기 유충 퇴치용 미꾸라지 1만5천여 마리를 방류했다.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을 하루 1천여 마리를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청은 월 2회 이상 유충 개체수 증감 현황을 조사해 효과가 없을 경우 방류 대상지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아이안과’ 의료진 北서 의료봉사

광주 ‘아이 안과’(대표원장 윤장현)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6월~2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금강산과 북한 현지에서 안과진료 및 백내장 수술을 한다. 이번 진료와 수술에는 윤장현 대표원장을 비롯한 서정성·윤대중·김진만 원장과 간호사·검안사 등 10여 명의 ‘아이 안과’ 의료진이 참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금강산 인근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온정 인민병원에서 매일 8시간 동안 진료를 하게 된다. 또 백내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북한 주민 40여

명에 대해서는 백내장 수술도 실시한다. ‘아이 안과’ 측은 이번 진료와 수술을 위해 수술 현미경 등의 의료기와 항생제 등 약품을 가지고 가며, 진료와 수술을 마치면 의료 장비를 온정 인민병원에 기증할 계획이다. 윤장현 원장은 “최고 수준의 진료로 북녘 동포들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Jeju Island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a 2-night 3-day trip to Jeju Island for 78,000 won. Includes details on departure dates, packages, and contact information.

SASA advertisement for children's furniture. Features images of a child's bedroom set and text describing the brand's commitment to quality and design for children's rooms.